

오늘의 기사판

12일
광주·전남경총 제 791회 금요조찬연수회=오전 7시 광주 무등파크호텔 4층 연회장. 이민원 광주대 교수가 강사로 참여해 '지방이 블루오션이다'에 관해 강연.
▲제 5회 식목안전의 날 기념행사 및 홍보 캠페인=오전 10시 서구 광천터미널 일대. 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가.
▲금연서포터즈 금연 캠페인=오후 2시 남구 봉선동 일대.
▲5·18민중항쟁 기념행사 대비 일제 대청소=오전 10시 국립 5·18 민주묘지 주변.
(13일)
▲2006 삼진항 낙지잡이 한마당축제 선포식=오후 2시 목포시 연산동 삼진 방과제. 개막 축하 공연·낙지춤 및 산낙지 먹기 대회·낙지잡이 체험

광주·전남경총 금요조찬연수회

합·프락고를 노래자랑·남도민요모듬 공연·어린이재롱잔치 등 부대 행사, 14일까지.
▲백제 불교 최초 도래지 준공 및 불교 전래 재현식 행사=오후 1시30분 영광군 법성면 진내리 좌우두 일대. 대구·경북·경남 지역 불교 신도 4천여명 등 1만2천여명 참석 예정. 오후 2시30분부터 1시간동안 불교 전래 재현식, 불교 음악회·사찰음식전시·다도 시연 및 시음·목판불경 탁본체험·백제의상 체험 등 부대행사.
▲가정사랑 창작음악회=12일(금) 오후 7시30분 광주주목회관 소극장.
▲박화선 원창 '수궁가'=13일(토) 오후 4시 광주주목회관 소극장.
▲김선철 음악발표회 '흠한중 벽돌한장'=13일(토) 오후 5시 의재미술관.

▲한국오페라 '아리아의 밤'=13일(토) 오후 7시30분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물처럼 바람처럼=21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 금남로 분관. 한국화가 박은용·오건규·박희석씨 등의 작품 40점 전시.
▲'선(禪) 달마화'전=18일까지 목포문화예술회관 6전시실. 한국화가 성인호씨의 달마도 작품과 자기 등 50여점 전시.
▲'제3회 구민의 날 기념 현대작가 초대전'=21일까지 광주시 남구문화예술회관 전시실. 광주 지역 작가 26명의 작품 전시.
▲살레시안 50주년 기념 살레시안전=15일까지 자미갤러리.
▲주제가 있는 도서전=13일까지 일곡갤러리.
▲아름다운 우리그림 생활자기전=16일까지 일곡갤러리.

일곡갤러리.
▲송윤 서예원전=17일까지 메트로갤러리.
▲아름다운 그림 걸기전=15일까지 광주신세계 갤러리.
▲우제길전=6월30일까지 우제길미술관.
▲조선대학교 60주년 기념 '조대민중미술운동사'전=15일~26일까지 조선대미술관.
▲'땅 사람 그리고 꿈'展=17일까지 지산갤러리. 지산갤러리 기획전으로 영상매체를 활용해 작업하고 있는 이수영·방우성·이남씨 등 3명의 작품을 한자리에 전시.

역사속의 오늘

▲사랑의 천사 영국의 간호사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태어남(1820)
▲비스마르크, 독일 총리에 취임(1871)
▲세종대왕 기념사업회 발족(1957)
▲내각제 개헌안 국회 상정(1960)
▲남산 케이블카 개통(1962)

뉴스퀴즈

11. '1천만달러' 소녀로 불리는 이 여자선수가 최근 인연 영종도에서 열린 남자대회인 한국프로골프(KPGA) 겸 아시아프로골프투어 SK텔레콤오픈에서 처음으로 컷 통과에 성공해 화제가 되었습니다.
국내에서 여자 골퍼가 남자 대회에서 컷을 통과한 것은 지난 2003년 SBS최강전의 박세리(CJ)에 이어 두 번째로, 이 선수는 7차례 상대결에서 모두 고배를 마셨다가 성공해 7전8기를 이뤘습니다.
이 선수는 누구일까요?
① 위성미 ② 김미현 ③ 장정 ④ 안시현

참여 방법

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 1위 삼성전자 고급 진공청소기 1대, 2위 무등파크호텔 숙박권 1매를 보내 드립니다.

보내실 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퀴즈담당자 앞 우편번호 501-711

검색절정 키워드

5월 둘째주는 광고 당첨자 발표가 인터넷을 달궜다. 광고 중소기업 평균 아파트 9천428명의 당첨자 명단은 지난 4일 발표됐다. 청약자 46만7천명 가운데 당첨자는 9천400명에 불과했고, 45만여명은 탈락해 섭섭해했다.
광고 당첨은 인근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2006년 부동산 로또'로 불렸고 당첨자 발표 이후에도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뒷얘기들로 인기 검색어 1위에 올랐다.
어린이날을 맞아 수원시 권선구 공군 10전투비행단 비행장에서 열린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 에어쇼 도 중 추락 사고도 무더기 클릭 세례를 받았다.
3천여명의 관람객이 지켜보는 가운데 발생해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했지만 조종사인 김도현 대위(33)의 '살신성인'으로 참사를 피했다. 특히 사고 당일 김 대위 4주년 결혼기념일이었고 김 대

공군 에어쇼 조종사 살신성인 애도물결

위가 내리꽂히는 전투기에서 비상 탈출을 시도하지 않고 끝까지 조종간을 놓지 않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인터넷에는 애도하는 글이 줄을 이었다.
어린이날·어버이날·스승의 날 등 기념일도 검색 빈도가 높았고, 인터넷 쇼핑몰에는 특별하고 기념되는 선물을 고르려는 네티즌들의 방문과 문의가 잇따랐다.
일본에서 활동 중인 탤런트 윤순하의 컴백 소식도 화제가 됐다. 윤순하는 MBC의 4부작 특집극 '그녀의 뇌출혈 스토리'(가제)의 주인공에 캐스팅돼 6년만에 국내 안방 무대로 컴백한다. 윤순하는 지난 2000년 드라마 '꽃' (KBS 2TV) 이후 일본으로 건너가 배우와 가수로 활동하며 폭넓은 인기를 모았다.
사람의 얼굴을 똑같이 닮고 표정도 지을 수 있는 인조인간 로봇 '에버원'도 네티즌 사이에 오르내린 검색어.
에버원(EveR-1·Eve와 Robot의 합성어)은 한

국생산기술연구원이 1년여에 걸쳐 개발한 인조인간 로봇으로, 키 160cm에 몸무게 50kg으로 우리나라 20대 초반 여성의 얼굴과 신체 특징을 가졌다. 상반신을 움직이고 외모와 행동, 회로에러의 감정 표현도 사람과 비슷하게 할 수 있지만 하반신은 아직 움직일 수 없다.
국내 최초로 개발됐으며 세계에서는 일본에 이어 2번째다.
이와 한 방송사에서 방영된 뒤 폭발적 관심을 끈 현대판 노예 할아버지, 평택미군기지 등 도 화제의 검색어 대열에 올랐다.
/김지용기자 dok2000@kwangju.co.kr

주간 금상금 검색어 (네트닷컴 제공)
1위 광고당첨자발표 6위 윤순하
2위 비행기추락 7위 에버원
3위 현대판노예 8위 박계동
4위 평택미군기지 9위 한혜진
5위 에버이날 10위 김준희



6년만에 국내 방송으로 컴백하는 원조 한류스타 윤순하.

바둑소식
서무상 6단, 최철한 9단 꺾어
서무상 6단이 지난 10일 한국기원 특별대국실에서 열린 제40기 KT배 왕위전 4강전에서 최철한 9단을 226수 만에 백 불계승으로 꺾는 파란을 연출했다.
국내 랭킹 33위인 서 6단은 8강전에서 랭킹 4위 박영훈 9단을 제압한 데 이어 랭킹 3위인 최철한 9단까지 제압하는 기염을 토했다.
서 6단은 대회 10연패를 기록 중인 이창호 9단과 도전 5번기를 갖는다. 왕위전 우승상금은 4천800만원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바둑소식
결정력 부족
최강부 개인전
준결승 9부(143~172)
白 김복현(5단) <가이기회>
黑 기용성(5단) <하동화력발전소>
전보에서 결정타를 놓친 기용성 5단은 아직도 자신이 유리하다고 굳게 믿는 듯 태연 자약하게 백의 주문을 다 받아주고 있다. 반면 김복현 5단은 실낱같은 역전의 희망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자 더욱 더 고삐를 조이고 있다.
'가'의 전지대패를 방치한 채 백(△)을 선수한 뒤 144로 불어난 수가 계속되는 승부수다. 혹은 이 때도 참고 도처럼 반발하여 7까지 백 한 점을

굿모닝 잉글리쉬 <644>
an open-minded person
たく트인 사람
A: He is such an open-minded person.
B: That's what I heard.
A: Not rigidly business-minded but very flexible.
B: I'm glad to hear you say that.
open-minded = broad-minded
He's not rigidly business-minded
= He doesn't think about business.
(반대 의미) = He can only think about business.
rigidly : 엄격한, 정밀한, 생각이 고정된, 굳은, 단단한
I'm glad to hear you say that. (you say는 생각해도 무방)
= I'm glad to hear that.
= That's good to hear.

오하이오 니혼고 <644>
どんなバスですか?
어떤 버스 말입니까?
A: 最近(さいきん)、高知(こうち)では、「デマンドバス」っていうのが、走(はし)っているそうですよ。
B: 「デマンドバス」って、どんなバスですか?
A: 利用者(りようきゃく)が路線(ろせん)を 選(えら)んで、申(もう)しこみ、それに□(おう)じて運行(うんこう)するそうです。
B: ヘ、ちょっとかわってるね。
A: 요즘 코우찌에서는 '데만도버스'라고 하는 것이 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B: '데만도버스'라니, 어떤 버스 말입니까?
A: 이용객이 노선을 골라서 신청하고, 거기에 응해서 운행한다고 합니다.
B: 허, 좀 색다르군.
最近(さいきん) : 최근, 요즘
高知県(こうちけん) : 四國의 4현 중의 하나
路線(ろせん) : 노선(도로, 선로 등의 교통선)
申(もう)しこむ : 신청하다
運行(うんこう) : 운행

니하오 쑹구위 <392>
你是哪國人?
어느 나라 분이세요?
A: 我是哪國人?
B: 你是哪國人?
A: 我是哪國人?
B: 你是哪國人?
A: 我是哪國人?
B: 你是哪國人?

한자 이야기 <262>
被告(피고)
당할 피, 알릴 고
피고(被告)는 고소(告訴)를 당한 사람이다. 여기서 피(被)는 수동(受動)의 '당하다'의 의미이다. 한편 고소를 제기한 사람을 원고(原告)라고 하는데, 이 경우의 원(原)은 부사로서 '본디' '원래'를 뜻한다.
피(被)는 의(衣) + 피(皮: 덮어쓰다)로, 옷을 잡아당겨 덮어 쓰는 것이다. 고(告)는 우(牛) + 국(口: 틀이고, 소름에 채우는 막대이다. 이것으로 사람에게 위협을 알린다고 하여 '고지(告知)함'을 나타낸다.
피고는 재판(裁判)에서 원고에 의하여 고소를 당한 쪽의 사람이지만, 피고라고 하여 모두 범죄(犯罪)를 저지른 사람은 아니다. 다만 먼저 소송(訴訟)을 제기한 쪽이 원고가 되고, 소송을 당한 쪽이 피고가 될 뿐이다. 이것은 누가 먼저 소송을 제기하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일 뿐 어디까지나 평등개념이다. 따라서 피고가 되었다고 하여 재판에서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니다.
한편 경찰에서 범죄의 혐의(嫌疑)를 받고 수사를 받는 사람을 피의자(被疑者)라고 하고, 이 피의자를 검찰이 기소하면 피고인(被告人)이라고 부른다.